

DAY
01

오늘성경통독 신명기 19장 □ 20장 □ 21장 □ 22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Date / /

말씀 신명기 20:1, 4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주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특성은 전지전능(全知全能)과 무소부재(無所不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곧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특성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특성 또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누가 보나 안보나 항상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겉모습과 외형적인 것들만 신경 쓰면 되지만 하나님

을 의식하는 사람은 겉만 아니라 속까지도 점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 권세에게 내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패배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잃게 되었을 때뿐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도 그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마주한 상황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잃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신 20:3-4)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나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중에 무엇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눔 2 내가 특별히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2

오늘성경통독 신명기 23장 □ 24장 □ 25장 □ 26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Date / /

말씀 신명기 25:13-16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들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가장 자주 짓는 죄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면서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남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했던 두 가지 측정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저울추’이고 다른 하나는 ‘되’입니다.

저울추의 의미를 알려면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저울은 양쪽에 같은 무게를 올려두면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울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 추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큰 추를 올려서 더 많은 물건이 저울에 올라가야 균형이 맞도록 하고, 남에게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추를 올려서 더 적게 올려도 균형이 맞도록 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대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며 사는 저울추의 죄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신의 죄는 덮이기를 바라고 남의 죄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

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 6:41-42)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의 죄보다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신 25:16).

우리의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입니다. 엄격해지려면 오히려 나에게 엄격해야 하고 관대한 것은 남을 향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DAY
03


오늘성경통독 신명기 27장 □ 2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Date / /

말씀 신명기 27:2-3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승리 공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너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신 27:2-3)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완전히 그들의 것이 되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를 취할 수 있고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공식과는 반대의 길로 갑니다. 먼저 세상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세상에서 이룰 것들을 이룬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부와 명성을 얻을 수는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잘 먹고 잘사는 삶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 삶이 승리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정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눔 1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분명한 기준입니까?

나눔 2 내 자녀에게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4

오늘성경통독 신명기 29장 □ 30장 □ 31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Date / /

말씀 신명기 30:15-16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의 길



하나님께서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 복과 화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두시고 한 길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길은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화의 기준이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5).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에게 찾아

온 생과 복은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뜻하지 않게 맞이하게 된 사와 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생사화복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生)과 복(福)의 길이고,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은 사(死)와 화(禍)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사랑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자신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사랑할 마음과 뜻과 힘이 남아 있지 않도록 모든 사랑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신 30:16,20)라는 말씀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생과 복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험난팔지 않는 사랑으로, 전심을 다 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번성의 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1 오늘 나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 2 나는 오늘 주님 생각을 얼마나 했나요? 주님은 나를 얼마나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